

Issue & Brief

서울시 정신응급 현황

#정신응급

제1호 (2020-01)

발행일 / 2020. 10. 30.

발행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발행인 / 이해우

ISSN / 2734-1712

이메일 / smhc-advisory@hanmail.net

연락처 / 02-3444-9934(직통연결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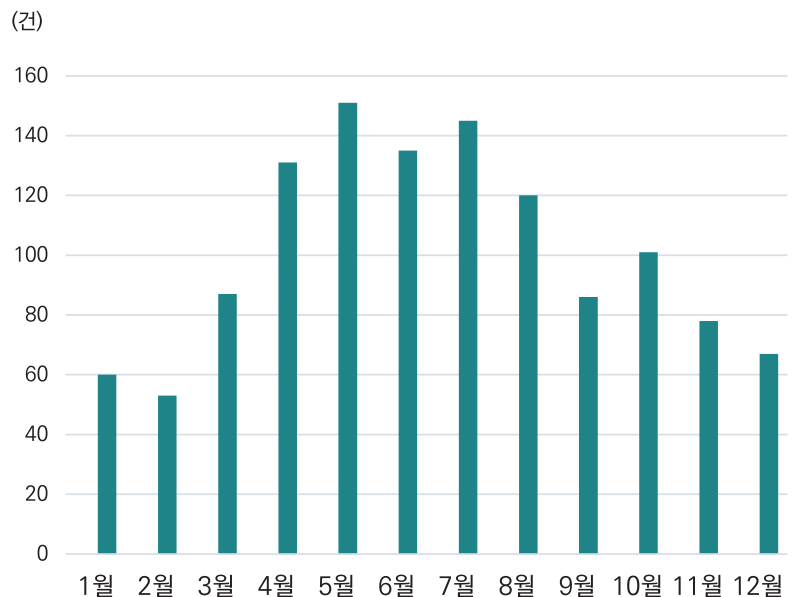
누리집 / <https://blutouch.net>



서울지역 정신응급현황조사 실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0년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신응급서비스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 항목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된 정신 응급 출동 요청 및 출동 건수, 출동 후 주요 조치 사항, 정신 응급 상황 발생 대응 시, 유관 기관(행정 기관, 소방, 경찰 등) 협조도 및 사업 수행 시 어려움, 응급 및 행정 입원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수, 정신과적 입원 건수 등이다.

2019년 정신응급현장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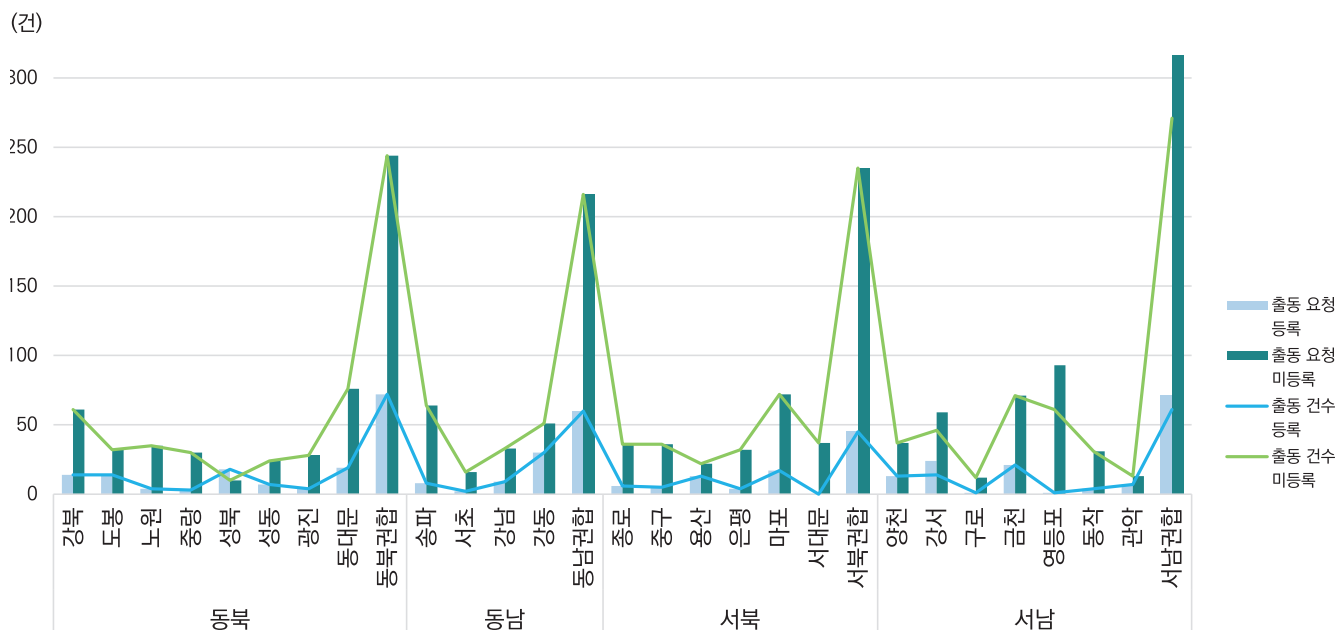
[그림 1.] 월별 정신 응급 출동 건수

- 2019년 서울지역 내 발생한 월별 정신 응급 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서울시 전체 정신 응급 현장 대응 건수는 지난 1년간 1,204건, 월 평균 101.1건¹⁾이었다. 2019년 4월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 사건²⁾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정신 응급 출동 건수 중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건수는 56%(682건)이상을 차지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간 기준(09:00 - 18:00) 정신 응급 출동 건수 (야간 및 휴일, 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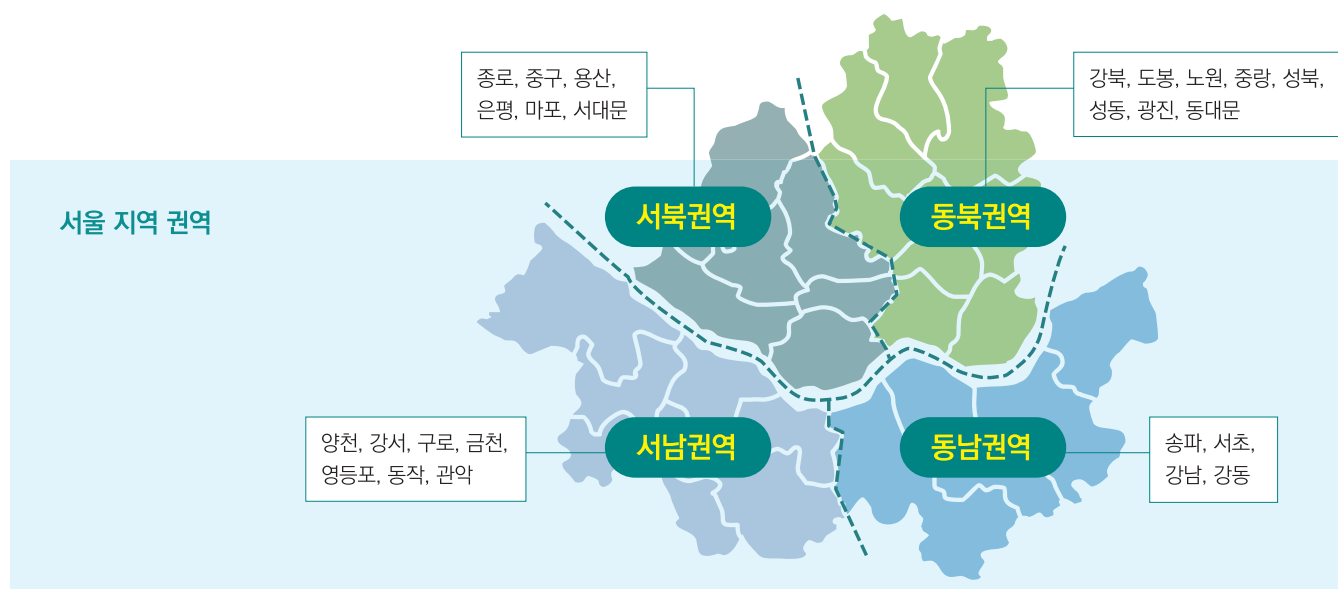
2) 2019년 4월 17일 진주시 소재 아파트 정신과적 입원 치료 후 수개월간 치료 중단 환자 방화 사건

서울 지역 권역별³⁾, 자치구별
정신 응급 출동 요청 vs 출동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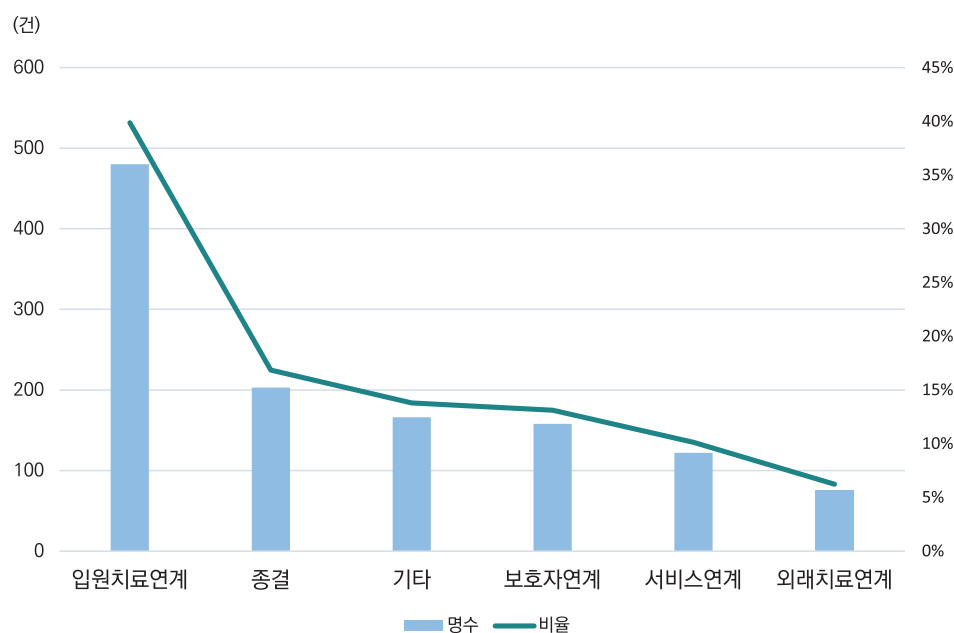


[그림2.] 서울 지역 자치구별, 권역별 정신 응급 출동 요청 vs 출동 건수

- 2019년 자치구별 정신 응급 출동 요청에 따른 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출동 요청이 많았던 지역은 동대문구(95건), 영등포구(94건), 금천구(92건) 순으로 나타났고, 실제 정신 응급 출동 건수는 동대문구(95건), 금천구(92건), 마포구(89건) 순으로 나타났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을 요청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2019년 전체 1,259건 중 경찰이 693건(55%)으로 그 빈도가 가장 높았고, 소방이 13건(1%)으로 가장 낮았다.
- 권역별로는 출동 요청 및 출동 건수에 있어 서남권 > 동북권 > 서북권 > 동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서남권의 경우 정신 응급 출동이 많았던 영등포구와 금천구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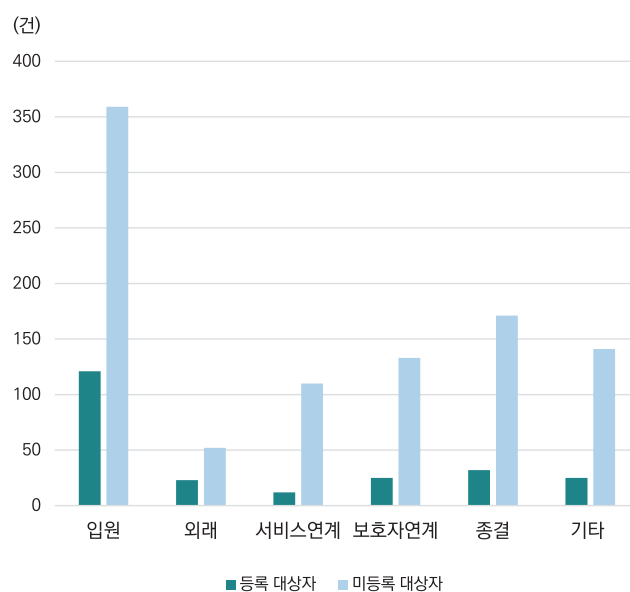


서울 지역 정신 응급 출동 조치 결과



[그림3.] 정신응급 출동 후 조치결과

- 2019년 서울 지역에서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 대응한 실제 조치는 그림3.과 같다. 대응 조치의 방법 중 정신 의학적 치료로는 입원 치료 또는 외래 치료가 있었고, 그 외에 서비스 연계, 보호자 연계, 기타 또는 종결의 방법이 있었다. 전체 1,204건의 현장 대응에서 응급 입원이 258건(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3건(17%)의 종결이 차지했다. 하지만 대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여부에 따라 응급 대응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4.] 정신응급 현장대응 조치결과

- 2019년 서울 지역 정신 응급 출동이 필요했던 인원은 1,204건이었으며, 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48건이었고, 이 중 현장대응을 진행한 건수는 238건이었다.
- 등록대상자의 경우 여러조치 중 정신의학적 치료개입인 입원 및 외래치료를 모두 합쳐 약 61%인 144건이 가장 많았다.
- 미등록 대상자의 경우 전체 정신 응급 출동 요청의 80%인 1,011건이었고, 이 중 966건에 실제 출동하여 현장 대응을 실시하였다. 정신 의학적 치료 개입은 42%로 61%인 등록 대상자에 비해 적었으며, 종결은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신 응급 대응에 관한 제언

첫째, 보다 효율적인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출동 및 대응이 빈번한 자치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 응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 응급 출동을 요청한 사안 중 대다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자의 경우이며, 조치 사항으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종결하거나 연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록 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증가세를 보이는 정신 응급 출동 빈도에 비해 서울 시내 응급 입원 및 행정 입원이 가능한 병원의 수가 제한적이다. 미등록 대상자 대부분이 신체상의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정신 질환의 동시 치료가 가능한 권역별 정신 응급 의료 기관의 병상 확대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선별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신 응급 출동이 월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 응급 형태의 연도별, 구별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정신응급 대응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